

## 메이크업 색채활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화장색 이미지 지각 및 선호도 연구 - 20대 여성 모델을 중심으로 -

이 연 희<sup>†</sup>

진주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Make-up Color Perception and P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Make-up Color System - Focused on a Female Model in Her Twenties -

Yon-Hee Lee<sup>†</sup>

Dept. of Beauty Desig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2005. 4. 27. 접수 : 2005. 9. 3. 채택)

#### Abstract

This study consists of the stimuli of a female model in her twenties with twenty-three different facial make-up and survey on the differences of them for the development of make-up color system, based on the color-sense on the Korean's skin-tone and make-up color, to enforce the efficiency of beauty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 is as followed. Firstly, Familiarity, Intelligence, Fitness, Charm, Tradition and Youth were came out as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make-up color image perception. Secondly, the stimulus of bare face was evaluated as more familiar and intelligent than the one with image make-up but perceived as unhealthy and not untraditional. Thirdly, skin tone had a big impact on both in lip color that's been applied in monotonous make-up and in image make-up that had been applied in contrastive make-up. Through these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the skin tone and make-up colors were influential variables in the research on facial image perception and preference against a female model in her 20s, and also the image test and preference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olor contrasts.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basic tool for the development of make-up color applying system with image perception of statics of population variables and preference research. Also it aim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to perform the present collage make-up education for more systematic and organized education.

*Key words: make up color(화장색), skin-tone(피부 톤), image perception(이미지 지각), preference(선호도).*

#### I. 서 론

화장은 색으로 신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장식 수단이며, 특히 얼굴 화장은 사회적 인상을 유지하는 요소이다<sup>1)2)</sup>. 즉, 피부 보호나 관리를 위한 기초 화장과는 달리 장식적 기능을 강조하는 색조 화장품은 색 선택과 피부 톤과의 조화, 그리고 배색 조건에

2004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2-G00025).

<sup>†</sup> 교신저자 E-mail: yh8170@hanmail.net

1) 大坊郁夫,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ップ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Vol. 10 (1996), pp. 11-16.

2) J. A. Graham and A. J. Jouhar, “Cosmetics considered in context of physical attractiveness: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Vol. 2 (1980), pp. 199-210.

따라 다양한 이미지가 연출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화장에서의 색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 교육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체계적인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피부 톤에 근거한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의 개발은 미용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2005년 3월 기준, 국내 대학의 미용 관련학과는 전문대학 약 100여개, 4년제 학부와 대학원에서 각각 10여개 이상이 개설되어 있으며<sup>3)</sup>, 대학의 이와 같은 추세는 중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미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교 또는 학과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미용교육계의 현실은 특히 대학 미용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중등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여성의 피부 톤에 따른 화장색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첫째 색채 화장 이미지 지각의 요인 구조를 밝히고, 둘째 모델의 본 얼굴 및 각 피부 톤과 화장색의 이미지 지각 차이를 파악하며, 셋째 본 얼굴 및 각 피부 톤에 따른 화장색 선호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에 대한 내용 분석과 화장품 시장 판매율에 대한 실증적 연구, 그리고 자극물과 자극물에 응답할 실본지에 의한 실험이 병행된 준 실험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결과는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한 미용 교육의 새로운 대안 제시와 메이크업의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나아가 학문으로서의 화장의 성장 가능성과 학문적 정립을 위한 밑거름 마련에 그 의의를 둔다.

## II. 이론적 배경

### 1. 화장과 화장색 이미지 지각

화장은 신체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이며, 그 용어는 개화기 이후부터 널리 사용된 외래어로서 가화(假化)·가식(假飾) 꾸밈 등의 뜻을 지닌다<sup>4)</sup>. 石田香里(1995)는 화장의 범위를 목록, 세안, 이 닦기 등의 일상적인 위생 행위와 수업잡기, 머리 손질과 같은 이·미용 행위, 그리고 피부관리, 메이크업, 마디 페인팅, 문신, 탈치, 석·탈모 등에 이르는 신체 관리와 장식에 관한 모든 행위<sup>5)</sup>라고 하였다. 오늘날 화장이라는 용어와 메이크업(make up)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다. 春山行夫(1992)는 화장이란 고대부터 얼굴에 색을 칠하는 것이 그 중심이며, 최근에는 메이크업이란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었으며, 그 기본적인 뜻은 화장품을 사용해서 여성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것<sup>6)</sup>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화장의 범위는 넓게는 신체를 가꾸거나 아름답게 하기 위한 포괄적인 모든 행위이며, 좁게는 얼굴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색이 있는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뷰티 메이크업을 지칭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활 용어에서 정착된 화장이란 용어는 곧 뷰티메이크업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의 ‘화장’이란 용어도한 뷰티메이크업으로 한정됨을 밝혀둔다.

얼굴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화장 즉, 뷰티메이크업은 색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화장색 이미지 지각은 색채 이미지 지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색채 이미지 연구는 색채 자체에 대한 것과 색채가 더해진 형태, 즉 색채를 띄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색채 이미지와 언어 이미지 사이의 함의점을 찾아 언어화된 색채로서 인간 심리나 감정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색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패션과 미용 관련 색채 이미지 연구는 小林重順<sup>7)</sup>과 국내의 (주)아이 알 아이 연구소<sup>8,9)</sup> 등에

3) 전문대학 이상 미용관련학과 및 전공 개설현황에 관한 연구자 직접 조사 결과.

4) *동아세계대백과사전 30권* (서울: 동아출판사, 1994), pp. 403-405.

5) 石田香里, *現象學的化粧論* 『おしやれの哲學』 (東京: 理想社, 1995), pp. 16-17.

6) 春山行夫, *化粧* (東京: 平凡社, 1992), pp. 18, 22.

7) 小林重順, *新·カラー・イメージ 辭典* (東京: 講談社, 1991), pp. 88-90.

8) 아이·알·아이 연구소, *한국인 색채감성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아이 알 아이 디자인 연구소, 1997).

9) 아이 알 아이 연구소, *색채기호 유형 추측에 관한 연구* (서울: 아이 알 아이 디자인 연구소, 1998).

의한 연구 결과를 기초 자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의 특징은 색채 이미지에 해당하는 형용사와 색채를 일치시켰고, 체계적인 색채 언어화와 심리적인 이미지로 이해되고 있는 배색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색채 이미지를 의복에 적용시킨 선행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음에 비하여, 화장색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sup>10)</sup> 등은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와 이민아, 김구자<sup>11)</sup>, 김구자, 정혜원<sup>12)</sup>, 김구자<sup>13)</sup> 등에 의한 개인의 피부색과 의상 선호색 조사 연구 결과들은 화장색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외모와 이미지 지각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Buss는 사람의 외모는 신체적 특징과 외모 장식으로 결정되며<sup>14)</sup>, Cash<sup>15)</sup>는 외모란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성, 인종, 나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에 대한 기본적 정보까지 전달됨을 언급하였다. Jackson<sup>16)</sup>은 얼굴은 몸(body)보다 더 중요하며, 이는 얼굴이 더 뚜렷하고 강력한 초기 정보 제공을 하고, 사회적 상호 관계에서 차별화된 정보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첫인상 형성에서 얼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Smolak<sup>17)</sup>은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얼굴 특징, 머리, 그리고 일반적인 외모와 관련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大坊郁夫<sup>18)</sup>는 얼굴의 매력성은 주어진 얼굴 형태와 표정, 그리고 화장으로 결정되며, 이 때 화장은 얼굴 장식의 주된 행위이고, 얼굴 매력성은 선택된 화장 색채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anders<sup>19)</sup>는 매력성은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더 건강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세련되며, 더 즐거운 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이점 또한 높을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하여 신체적인 매력성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외모에서 얼굴은 사회적 인상 형성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이 때 얼굴의 장식 행위인 화장은 매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 2. 얼굴 화장 이미지 지각의 선행 연구

화장과 관련한 인상 형성 연구에서 Hamid<sup>20)</sup>는 화장을 한 얼굴이 하지 않은 얼굴보다 더 좋은 인상을 형성하며, McKeachie<sup>21)</sup>, Jouhar & Graham<sup>22)</sup>은 화장의 유·무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성격 추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외모에서 얼굴의 화장이 이미지 지각의 직접적인 정석 단서가 됨을 시사하는

- 10)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권 2호 (1995), pp. 167-180.
- 11) 김구자, "한국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의상선호색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학회지* 26권 1호 (2002), pp.133-143.
- 12) 김구자, 정혜원, "한국노년 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선호색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학회지* 26권 2호 (2002), pp. 303-314.
- 13) 김구자, "성인 남성의 피부색 분류와 선호색에 대한 연구," *한국의료학회지* 26권 11호 (2003), pp. 1338-1349.
- 14) A. H. Buss, Self-consciousness and Appearance.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85), pp. 125-130.
- 15) T. F. Cash, Body Image and Social Relations. in *Body Image* (N. Y.,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2), pp. 277-279.
- 16) L. A. Jackson, Physical Attractiveness: A Sociocultural Perspective. in *Body Image*, (N. Y.,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2), p. 17.
- 17) L. Smolak, Body Image Development in children. in *Body Image*, (N. Y.,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2), pp. 65-67.
- 18) 大坊郁夫, *Op. cit.*
- 19) C. R. Sanders, *Customizing the Body*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89), pp. 1-2.
- 20) P. Hamid, "Some Effects of Dress Cues on Observational Accuracy: A Perceptual Estimate,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No. 86 (1972), pp. 279-289.
- 21) W. McKeachie, "Lipstick as Determiner of First Impressions of Personality: An Experiment for the Psychology Cour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No. 36 (1952), pp. 241-244.
- 22) A. J. Jouhar and J. A. Graham, *Psychological Studies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85), pp. 93-99.

것이다. Waters<sup>23)</sup>는 여성 외모가 고용 과정과 급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 모델의 본 모습과 헤어스타일, 화장을 한 모습을 촬영한 자극물을 제작하여, 대기업의 직원 채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모는 모든 직업의 고용 과정, 급여 수준 결정, 승진이나 승급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Graham과 Jouhar<sup>24)</sup>는 대인 지각에서 화장품의 효용 가치와 ‘아름다움은 선’이라는 고정 관념의 존재 여부를 고찰하기 위한 실험 연구 결과 화장품은 여성의 외모 특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서 화장한 여성은 대인관계에서 더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진숙, 김창순, 신은영<sup>25)</sup>은 색채 감성 분석기법에 의한 화장의 이미지 유형별 예측 모델 작성을 위한 연구에서, 화장색은 여성 얼굴 이미지 형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이연희<sup>26)</sup>는 얼굴 화장색 이미지 지각 연구를 통하여 화장색은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음을 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외모는 대인 지각 과정에서 지각자에게 단서를 제공하며, 얼굴은 사회적 인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은 여성 얼굴 이미지 지각의 직접적인 단서로서 매력성에 영향을 주며, 외모의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긍정적인 수단 이 됨을 알 수 있다.

### 3.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이론

퍼스널 컬러 분석과 활용은 헤어 비용, 메이크업, 패션 연출 등과 같은 외모 장식 관련 학계와 산업계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색이라고 일컫어지는 퍼스널 컬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의미하며, 피부색·머리색·눈동자 색과 이들 간의 대비 정도에 따라 영역을 분류하여, 각 영

역에 가장 적합한 색채 군을 선택하는 것이다<sup>27)</sup>.

퍼스널 컬러 연구와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화 된 곳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민족이 공존하는 미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복이나 화장품 산업에서 이들 각 민족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컬러 제품의 제공은 관련 산업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그들의 피부색이나 머리색에 근거한 올바른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의복 아이템 간의 조화를 시도하는 코디네이션 룩이 미국인들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당시 새로운 전문직으로 부상한 이미지 컨설턴트(consultant)들이 퍼스널 컬러에 대한 연구와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이미지 컨설턴트 캐롤 잭슨은 1970년대 중반 ‘Color Me beautiful’이라는 강좌를 통하여 수강생들의 퍼스널 컬러 분석과 그에 따른 활용색 범위를 선정하였는데, 개개인의 피부색, 머리색, 눈동자색이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그 범주를 사계절로 나누고, 네 가지의 범주 중 어느 한 곳에 개인이 속하도록 하였다. 캐롤 잭슨 이론의 특징은 우선 피부색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파악하여, 따뜻한 느낌의 피부이면 가을과 봄, 차가운 느낌이면 겨울과 여름으로 분류하고, 이들은 다시 머리카락 눈동자 색의 조건에 따라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로 분류하는 것이다<sup>28)</sup>. 이 이론의 한계점은 그것이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확연한 컬러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적합하지만, 비슷한 고유색의 조건을 가진 국가와 민족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더욱이 4가지 범주 안에 개개인의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캐럴 잭슨의 사계절 룩을 보완하는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1991년 Donna Fujii는 인종별 퍼스널 컬러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인종별 피부색을 한난과 농담

23) J. Waters, *Cosmetics and the Job Market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85), pp. 113-124.

24) J. A. Graham and A. J. Jouhar,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Vol. 3 (1981), pp. 199-210.

25) 이진숙, 김창순, 신은영, "색채감성 분석 기법에 의한 제품의 이미지 유형별 예측 모델 작성," *한국색채학회지* 13호 (1999), pp. 67-73.

26) 이연희,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27) 이연희, "토탈코디네이션의 관점에서 본 퍼스널 컬러의 의미," *한국패션뷰티학회지* 2권 1호 (2004), p. 1-4.

28) C. Jackson, *Color Me Beautiful* (N.Y.: Ballentine Books, 1984), pp. 41-59.

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이들 각 피부색과 머리색의 대비성도와 눈동자 색을 고려하여 코카시안(caucasian) 8, 아시안(asian) 9, 히스페닉(hispanic) 4, 흑인(black) 4 등 총 2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었다<sup>29)</sup>. 이 이론의 특징은 아시아인, 흑인, 그리고 히스페닉 여성의 퍼스널 컬러 분류 기준을 더욱 세분화 시켰다는데 있다. 즉, 기존 사계절 론에서 이들 대부분은 겨울과 가을에 속했지만, 실제로 아시안·흑인·히스페닉 여성들의 피부색은 밝은 도자기 색부터 올리브, 블루 블랙까지이고, 반면에 그들의 머리색은 은회색부터 갈색, 검은 갈색까지의 빛을 자아낼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계절에 한정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또한 코카시안도 피부색과 머리색, 눈동자색의 대비 정도에 따라서 각 계절을 로우 컨트라스트(low contrast)와 하이 컨트라스트(high contrast)로 세분화시킴으로써 퍼스널 컬러 분석의 방법과 활용법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Mary Spilane·Christine Sherlock은 사계절의 각 계절을 Clear, Cool, Warm으로 다시 분류 총 12가지의 퍼스널 컬러 영역을 제시하였으며<sup>30)</sup>, Doris Pooser는 퍼스널 컬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의 차가움과 따뜻함, 어둠과 밝음에 따라 Deep, Light, Bright, Muted, Warm, Cool 6가지로 분류하였다<sup>31)</sup>.

이상과 같이 퍼스널 컬러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지만, 분류된 각 영역에 적합한 색채 군 선택 기준은 유사하다. 즉, 따뜻한 영역에는 따뜻한 색채군, 차가운 영역에는 차가운 색채군이 어울리지만, 이를 다시 부드러움과 강함으로 세분하여 적합한 색조를 찾는 것이므로, 퍼스널 컬러의 기준은 색상과 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보리 피부톤과 부드러운 갈색 톤의 머리, 그리고 갈색 눈동자의 소유자는 따뜻한 색계열의 부드러운 색조를 가진 색채군의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였을 때 가장 돋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퍼스널 컬러 분류기준에 따라 모델의 피부톤을 차가운 톤과 따뜻한 톤으로 조절하여, 이에 따른 화장색을 적용시켰다. 모델의 흑갈색 머리와 눈동자 색은 조절하지 않았는데, 이는

Donna Fujii의 아시안 영역 분류에 기준한 것이다<sup>32)</sup>.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용교육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화장색의 이미지 지각의 요인 구조를 밝힌다.

둘째, 모델의 본 얼굴과 피부톤에 따른 화장색의 이미지 지각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모델의 피부톤에 따른 화장색의 선호도 차이를 조사한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은 연구 목적에 맞게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된 집단인데, 이는 본 연구가 교육용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 개발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대상자들은 전국을 수도권, 광역시, 지방도시 등의 세 영역으로 분류, 해당하는 지역을 고르게 선정한 후, 색에 대한 전문 지식과 색채 활용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미용, 패션, 그리고 디자인 관련 전문직 종사자와 전공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표집되었다. 전문 조사원 12명은 응답자들이 자극을 한 개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04년 12월 한 달간이었다. 전체적으로 1,656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1,574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t-검정,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Cronbach's  $\alpha$ , 던컨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으로 분석되어졌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20대 모델 한 명의 본 얼굴과 본 얼굴을 22가지의 화장색으로 변화시킨 총 23가지의 얼굴 사진 자극물과 이에 응답할 설문지로

29) D. Fujii, *Color with Style* (Tokyo: Graphic-Sha, 1991), pp. 6-14.

30) M. Spillane and C. Sherlock, *Color Me Beautiful's Looking Your Best* (N.Y.: Madison Books, 1995), pp. 27-29.

31) D. Pooser, *Always in Style* (CA.: Crisp Pub. 1997), p. 100.

32) D. Fujii, *Op. cit.*, p. 43.













구상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3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대와 40대 여성 모델 선정에 위한 것이었으며, 2차 예비조사는 설문지 제작을 위한 것이었다. 3차 예비조사는 20대와 40대 모델들에게 동일한 화장조건을 적용시킨 자극물 6장을 제작하여 이에 대한 지각자들의 반응 조사로서, 그 목적은 모델의 연령에 따라 화장색 이미지와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 검증에 위한 것이었다. 3차 예비조사 결과, 40대 모델의 경우 화장색 조건이 달라도 이미지와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20대에 비하여 극히 낮았으므로, 본 조사는 20대 모델 1명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모델 선정은 공개 모집에 응한 희망자 중 10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의 얼굴 정면사진을 A4 캔트지에 배열한 후, 표준형에 가장 가까운 얼굴을 1에서

3의 순위까지 기입하게 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모델을 선정하였다. 순위를 판단한 집단은 교수, 학생 각각 25명씩 총 50명이었다. 자극물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자극물 제작을 위한 피부 본 조절은 베이스 메이크업 색에 따라 포인트 메이크업 색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이론과 색조 화장품 시장의 제품 판매율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즉, 국내 대형 백화점과 화장품 전문 업체, 그리고 화장품 관련 마케팅 자료를 분석한 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브랜드 4개의 관련 제품 중, 판매율이 공동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색으로 하였다. 총 23장의 각 자극물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묻는 질문지는 34개의 7점 의미 미분 척도 형용사 쌍과 선호도를 묻는 5점 척도 1문항, 그리고 인구 통계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 4문항을

이미지 화장						
밝은 피부톤: 3.1YR 7.1/4.1, 1.2YR 8.3/3.0				어두운 피부톤: 5.4YR 6.3/4.9, 6.1YR 8.8/2.0		
자극물	화장색	민셀기호	명칭	자극물	화장색	민셀기호
	F P L S B	6.0YR 7.2/2.6 입술: 4.8R 5.6/6.7	본얼굴			
	F P L S B	입술: 4.1R 6.0/7.6 눈: 7.4P 7.2/4.2, 0.4Y 7.3/5.8, 4.5RP 6.2/9.5 볼: 7.6RP 6.9/7.7	로맨틱		F P L S B	입술: 4.1R 6.0/7.6 눈: 7.4P 7.2/4.2, 0.4Y 7.3/5.8, 4.5RP 6.2/9.5 볼: 7.6RP 6.9/7.7
	F P L S B	입술: 6.1R 5.3/3.2 눈: 9.0YR 8.9/0.7, 8.7RP 6.5/5.9, 4.2PB 7.2/4.8 볼: 7.6RP 6.9/7.7	엘레 강스		F P L S B	입술: 6.1R 5.3/3.2 눈: 9.0YR 8.9/0.7, 8.7RP 6.5/5.9, 4.2PB 7.2/4.8 볼: 7.6RP 6.9/7.7
	F P L S B	입술: 5.3RP 6.5/9.9 눈: 2.8Y 9.1/9.3, 5.7PB 7.1/5.8, 5.6PB 4.1/3.5 볼: 7.6RP 6.9/7.7	클		F P L S B	입술: 5.3RP 6.5/9.9 눈: 2.8Y 9.1/9.3, 5.7PB 7.1/5.8, 5.6PB 4.1/3.5 볼: 7.6RP 6.9/7.7
	F P L S B	입술: 8.4R 4.4/7.3 눈: 2.9G 6.7/5.3, 9.5R 6.4/6.4, 5.6YR 4.2/1.6 볼: 6.6R 6.6/7.1	내추럴		F P L S B	입술: 8.4R 4.4/7.3 눈: 2.9G 6.7/5.3, 9.5R 6.4/6.4, 5.6YR 4.2/1.6 볼: 6.6R 6.6/7.1
	F P L S B	입술: 5.1R 3.2/7.0 눈: 6.0YR 8.2/2.6, 5.6YR 5.8/4.3, 2.7YR 3.5/2.0 볼: 6.6R 6.6/7.1	클래식		F P L S B	입술: 5.1R 3.2/7.0 눈: 6.0YR 8.2/2.6, 5.6YR 5.8/4.3, 2.7YR 3.5/2.0 볼: 6.6R 6.6/7.1

<그림 1> 이미지 화장 자극물.

입술 화장						
밝은 피부톤			명칭	어두운 피부톤		
자극물	화장색	면셀기호		자극물	화장색	면셀기호
	F P L	3.1YR 7.1/4.1, 1.2YR 8.3/3.0, 4.1R 6.0/7.6	새번 핑크		F P L	5.4YR 6.3/4.9, 6.1YR 8.8/2.0, 4.1R 6.0/7.6
	F P L	6.1R 5.3/3.2		그레 이쉬 퍼플		F P L
	F P L	5.3RP 6.5/9.9	핑크		F P L	5.3RP 6.5/9.9
	F P L	8.4R 4.4/7.3	주황		F P L	8.4R 4.4/7.3
	F P L	5.1R 3.2/7.0	빨강		F P L	5.1R 3.2/7.0
	F P L	3.9R 4.2/8.5	미디엄 브라운		F P L	3.9R 4.2/8.5

〈그림 2〉 입술 화장 자극물.

포함한 총 39분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는 가장 판매율이 높고 한국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두운 색과 밝은 색 한 가지 색을 각각 선정하였다. 이미지 화장을 위한 색 선정과 배색은 일본 색채연구소와 국내 아이 알 아이 연구소의 색채 이미지 관련 자료와 연구자의 선행 연구 결과와 각 색조 화장품 시장의 판매율에 근거하였다. 질문지는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34개의 7점 의미 미분 척도 형용사 쌍과 선호도를 묻는 5점 척도 1문항, 그리고 인구 통계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 4 문항을 포함한 총 39분항으로 구성하였다.

####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 산출, 사후검증으로 Duncan's M. R. Test를 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지각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의도표집에 의한 지각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피부 톤에 따른 메이크업 색 요인 분석

메이크업 색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4개의 7점 의미미분 척도 형용사 쌍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요인분석 결과, 친숙성, 지성, 건강, 매력, 전통성, 젊음 등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 부하량은 각각 .580, .616, .512, .541, .694, .513 이상이었다. 각 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요인 1 친숙성은 전체변량의 17.002, 요인 2의 지성은 11.491, 요인 3의 건강은 11.145, 요인 4의 매력성은 7.903, 요인 5의 전통성은 6.635, 요인 6의 젊음은 6.336이었고, 6개 요인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N	%			N	%
성별	남	783	49.75	직업	학생	308	19.58
	여	791	50.25		전문직	404	25.68
연령	20대	794	50.44		사무직	354	22.50
	30/40대	780	49.56		서비스직	273	17.36
거주지	수도권	528	33.55		기타	234	14.88
	광역시	509	32.34				
	기타 지방	537	34.12				
계		1,574	100.00				

에 대한 누적변량은 60,512였다. 요인별 신뢰도는 친숙성 .892, 지성 .845, 건강 .834, 매력성 .713, 전통성 .672, 그리고 젊음 요인 .670 이상이었다.

**3. 본 얼굴 및 각 피부 톤에서의 입술 색에 대한 이미지 지각의 차이**

**1) 본 얼굴과 밝은 피부 톤에서의 입술 색에 따른 요인 비교**

밝은 피부 톤(화운데이션 3.1YR 7.1/4.1, 파우더 1.2YR 8.3/3.0)에서의 여섯 가지 각 입술색과 본 얼굴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서 6개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얼굴(피부 톤: 6.0YR 7.2/2.6, 입술: 4.8R 5.6/6.7)은 친숙하고 지성적인 것으로, 새면핑크(4.1R 6.0/7.6) 입술은 친숙하고 지성적이면서 건강하고 젊게 보이는 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주황(8.4R 4.4/7.3), 빨강(5.1R 3.2/7.0) 색 입술은 지성적이지도 친숙하지도 않은 입술색으로 지각되었으며, 핑크(5.3RP 6.5/9.9)는 친숙하고 매력적이며, 건강한 입술 색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진 입술색은 미디엄 브라운(3.9R 4.2/8.5), 그레이쉬 퍼플(6.1R 5.3/3.2), 주황, 빨강 등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밝은 피부 톤에서는 입술 화장을 한 입술이 하지 않은 입술보다 더 전통적인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2) 본 얼굴과 어두운 피부 톤에서의 입술 색에 따른 요인 비교**

모델의 본 얼굴과 어두운 피부 톤(화운데이션 5.4YR 6.3/4.9 파우더 6.1YR 8.8/2.0)에서의 각 입술색 비교에서 6개의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친숙성 요인에서는 본 얼굴이 가장 친숙하게, 새면 핑크, 그레이쉬 퍼플, 빨강, 핑크 등은 친숙하지 않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밝은 피부 톤의 입술 화장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성요인에서는 본 얼굴이 가장 지성적이었고, 주황색 입술 화장이 가장 지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요인에서는 빨강 입술색이 가장 건강하게 지각되었던 반면, 새면 핑크와 핑크 입술색은 가장 건강하지 않게 평가되었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빨강색이 가장 매력적으로, 주황색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전통성 요인에서는 주황색 입술 화장이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본 얼굴이 가장 전통적이지 않게 지각되었다. 젊음 요인에서는 주황색이 가장 젊게 지각되었고 빨강색 입술이 가장 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피부 톤에 따른 입술색 이미지 지각의 차이 비교**

두 개의 피부 톤에서 나타난 입술색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6개의 요인에서 〈그림 3〉에서 〈그림 8〉의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에서 립 1은 새면핑크, 립 2는 그레이쉬 퍼플, 립 3은 핑크, 립 4는 주황, 립 5는 빨강, 립 6은 미디엄 브라운을 지칭한다.

**(1) 친숙성 요인**



〈표 2〉 화장품 색의 요인분석

요인명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공통성
친숙성	자연스러운-어색한	<b>.730</b>	.166	.264	-.002	.047	.157	.657
	편안한-불편한	<b>.727</b>	.181	.101	.026	.095	.211	.626
	부드러운-사나운	<b>.672</b>	.220	.016	-.020	.237	.281	.636
	보기좋은-보기싫은	<b>.672</b>	.294	.216	.258	-.017	.023	.652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b>.644</b>	.346	.103	-.066	.158	.010	.575
	순한-자극적인	<b>.629</b>	.341	-.068	-.094	.184	.218	.607
	여성적인-남성적인	<b>.603</b>	.132	.240	.245	.154	-.216	.569
	친근한-생소한	<b>.594</b>	.200	.095	-.036	.111	.241	.473
사랑스러운-사랑스럽지 않은	<b>.580</b>	.177	.155	.347	-.063	.246	.576	
지성	지성적인-감성적인	.156	<b>.819</b>	.099	.061	-.032	.065	.714
	암전한-말랄한	.190	<b>.778</b>	-.024	-.057	.090	.058	.656
	은화한-사나운	.328	<b>.708</b>	.012	-.037	.137	.156	.653
	수줍은-과감한	.234	<b>.677</b>	-.008	-.026	.037	.216	.562
	고상한-고상하지 않은	.412	<b>.616</b>	.092	.078	-.011	.071	.569
건강	건강한-아픈	.001	-.008	<b>.735</b>	.029	.220	.015	.589
	밝은-어두운	.150	.069	<b>.732</b>	.123	-.104	.259	.657
	즐거운-우울한	.196	.104	<b>.709</b>	.200	.051	.169	.623
	화려한-수수한	-.061	-.145	<b>.643</b>	.343	.032	.044	.559
	깨끗한-지저분한	.392	.167	<b>.568</b>	.091	-.204	.013	.555
	시원한-답답한	.380	.050	<b>.554</b>	.215	-.301	-.014	.591
	상큼한-칙칙한	.398	.060	<b>.512</b>	.259	-.223	.071	.545
매력성	섹시한-섹시하지 않은	.009	-.146	.198	<b>.809</b>	.035	.060	.720
	독특한-평범한	-.187	-.195	.260	<b>.654</b>	-.100	.067	.583
	예쁜-예쁘지 않은	.317	.306	.186	<b>.616</b>	-.070	.107	.624
	매력있는-매력없는	.327	.258	.263	<b>.541</b>	-.092	.169	.573
전통성	한국적인-이국적인	.206	.019	.021	-.127	<b>.758</b>	-.138	.654
	고전적인-현대적인	.022	.182	.017	-.033	<b>.709</b>	-.241	.595
	따뜻한-차가운	.294	-.011	-.108	.065	<b>.694</b>	.275	.659
젊음	어려보이는-나이 들어보이는	.198	.187	.263	.170	-.152	<b>.691</b>	.673
	귀여운-성숙한	.161	.132	.146	.261	-.099	<b>.689</b>	.617
	청순한-요염한	.302	.226	.075	-.071	.012	<b>.513</b>	.416
고유치		5.271	3.562	3.455	2.450	2.057	1.964	18.759
전체 변량의 %		17.002	11.491	11.145	7.903	6.635	6.336	60.512
공통 변량의 %		28.097	18.990	18.418	13.060	10.965	10.471	100.0

〈표 3〉 본 얼굴과 밝은 피부톤에서의 입술색에 따른 요인 비교

	본얼굴 (n=77)	밝은 피부톤의 입술색						F	p
		새먼핑크(n,65)	그레이퍼플(n,71)	핑크(n,72)	주황(n,70)	빨강(n,60)	미디엄브라운(n,67)		
친숙성	.98 <sup>a</sup>	.78 <sup>a</sup>	.83 <sup>a</sup>	.97 <sup>a</sup>	-.36 <sup>b</sup>	-.88 <sup>c</sup>	-.10 <sup>b</sup>	56.596	.000**
지성	.95 <sup>a</sup>	.67 <sup>ab</sup>	.26 <sup>c</sup>	.65 <sup>b</sup>	-.19 <sup>d</sup>	-.33 <sup>d</sup>	.21 <sup>c</sup>	21.752	.000**
건강	-.35 <sup>d</sup>	.89 <sup>a</sup>	-.75 <sup>c</sup>	.94 <sup>a</sup>	.14 <sup>c</sup>	.42 <sup>b</sup>	-.41 <sup>d</sup>	45.646	.000**
매력성	-.28 <sup>bc</sup>	-.08 <sup>b</sup>	-.30 <sup>bc</sup>	.49 <sup>a</sup>	-.10 <sup>b</sup>	-.19 <sup>bc</sup>	-.48 <sup>c</sup>	8.290	.000**
전통성	-1.23 <sup>c</sup>	-.46 <sup>b</sup>	.16 <sup>a</sup>	-.54 <sup>b</sup>	.01 <sup>a</sup>	.29 <sup>a</sup>	.04 <sup>a</sup>	25.696	.000**
젊음	.01 <sup>b</sup>	.68 <sup>a</sup>	.50 <sup>a</sup>	-.01 <sup>b</sup>	-.38 <sup>c</sup>	-.75 <sup>d</sup>	-.12 <sup>bc</sup>	19.662	.000**

\*\* p<.01, a,b,c,d,e: Duncan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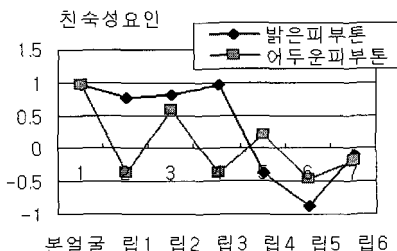
〈표 4〉 본 얼굴과 어두운 피부 톤에서의 입술 색에 따른 요인별 비교

	본얼굴 (n=77)	어두운 피부톤의 입술색						F	p
		새먼핑크(n,71)	그레이퍼플(n,70)	핑크(n,72)	주황(n,72)	빨강(n,70)	미디엄브라운(n,68)		
친숙성	.98 <sup>a</sup>	-.36 <sup>d</sup>	.58 <sup>b</sup>	-.36 <sup>d</sup>	.20 <sup>c</sup>	-.47 <sup>d</sup>	-.18 <sup>d</sup>	34.015	.000**
지성	.95 <sup>a</sup>	-.08 <sup>bc</sup>	.23 <sup>b</sup>	.00 <sup>bc</sup>	-.42 <sup>d</sup>	-.24 <sup>cd</sup>	.04 <sup>bc</sup>	18.482	.000**
건강	-.35 <sup>h</sup>	-.66 <sup>c</sup>	-.61 <sup>bc</sup>	-.78 <sup>c</sup>	-.48 <sup>bc</sup>	.48 <sup>a</sup>	-.60 <sup>bc</sup>	17.980	.000**
매력성	-.28 <sup>b</sup>	-.34 <sup>b</sup>	-.23 <sup>h</sup>	-.03 <sup>ab</sup>	-.72 <sup>c</sup>	.15 <sup>a</sup>	-.08 <sup>ab</sup>	6.003	.000**
전통성	-1.23 <sup>d</sup>	-.08 <sup>c</sup>	.35 <sup>b</sup>	-.07 <sup>c</sup>	.97 <sup>a</sup>	.34 <sup>b</sup>	-.29 <sup>c</sup>	46.858	.000**
젊음	.01 <sup>bc</sup>	-.13 <sup>bc</sup>	.03 <sup>b</sup>	-.29 <sup>cd</sup>	.41 <sup>a</sup>	-.55 <sup>d</sup>	.07 <sup>b</sup>	8.388	.000**

\*\* p<.01, a,b,c,d: Duncan 검정.

입술색과 두 개의 피부 톤에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친숙성 요인에서 립 1의 새먼핑크와 립 3의 핑크 입술색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밝은 피부톤에서는 옅은 입술 색이 매우 친숙하게 지각되었지만, 어두운 피부 톤에서는 그레이쉬 퍼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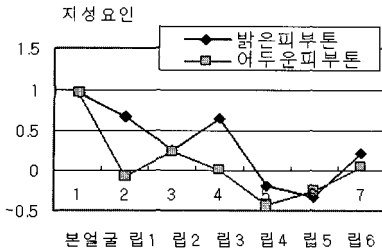
가장 친숙하다고 평가하였다. 본 얼굴과 입술화장을 한 자극물에 대한 비교에서, 대체로 지각자들은 입술 화장을 한 얼굴보다 입술화장을 하지 않은 본 얼굴을 가장 친숙하다고 하였다. 친숙성 요인에서 피부톤에 따른 입술색 평가 결과, 퍼스널 컬러 이론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친숙성 요인의 피부톤별 입술색 비교.

(2) 지성요인

지성요인에서도 본 얼굴은 가장 지성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먼 핑크와 핑크색 입술은 피부 톤에 따른 차이가 컸으며, 주황과 미디엄 브라운은 차이가 비교적 적었으며, 그레이쉬 퍼플과 빨강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적이지 않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강한 입술색은 피부 톤에 관계없이 지성적인



〈그림 4〉 지성 요인의 피부톤별 입술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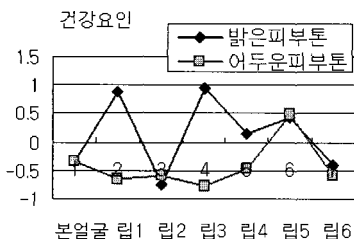
지 않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또한 핑크, 새면 핑크색 입술의 자극물에 대한 결과는 퍼스널 컬러 이론과 비교적 일치되나, 주황색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3) 건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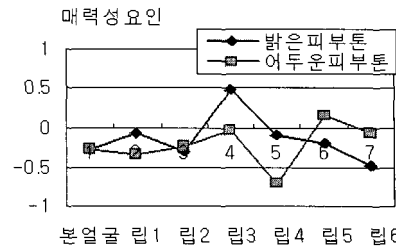
건강요인에서의 비교 결과, 핑크, 새면 핑크, 주황의 순서로 피부톤에 따른 지각 차이가 컸으며, 그레이쉬 썸, 빨강, 마디엄브라운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빨강색 입술은 피부톤에 상관없이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그레이쉬 썸은 두 가지 피부톤에서 가장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얼굴은 비교적 건강하지 않게 지각됨으로써 친숙성과 지성요인에서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두운 피부톤에서의 주황색 입술 화장이 밝은 톤에서의 그것보다 더 건강하지 않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지성요인에서의 결과와 비슷하다.

**(4) 매력성 요인**

매력성 요인에서는 핑크와 주황색 입술에서 피부톤에 따른 차이가 다른 색에 비하여 컸으며, 빨강과 마디엄 브라운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레이쉬 썸은 피부톤에 따른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지성과 건강요인에서의 결과와 비슷하다. 본 얼굴은 어두운 피부톤에서의 주황과 밝은 피부 톤에서의 마디엄 브라운



〈그림 5〉 건강 요인의 피부톤별 입술색 비교.



〈그림 6〉 매력성 요인의 피부톤별 입술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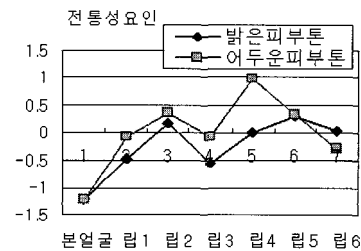
운 입술색의 자극물과 함께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매력성 요인에서의 피부톤에 따른 입술색 이미지 평가에서, 퍼스널 컬러 이론이 비교적 지지되나, 주황색의 경우 퍼스널 컬러 이론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5) 전통성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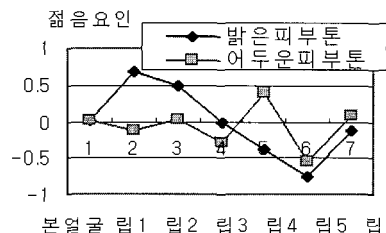
전통성 요인에서는 주황색 입술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주황색 입술은 밝은 피부톤에서는 전통성이 낮지만, 어두운 피부 톤에서는 가장 전통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친숙성 요인에서의 결과와 비슷하다.

**(6) 젊음 요인**

젊음 요인에서는 새면 핑크, 그레이쉬 썸, 주황에서 차이가 컸다. 특히 주황색 입술은 밝은 피부 톤



〈그림 7〉 전통성 요인의 피부톤별 입술색 비교.



〈그림 8〉 젊음 요인의 피부톤별 입술색 비교.

에서는 젊지 않게 평가되었지만, 어두운 피부 톤에서는 6가지 입술색 중에서 가장 젊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황색 입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친숙성, 전통요인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며, 지성, 건강, 매력성 요인에 대한 그것과 상반된다.

본 얼굴과 각 피부톤에 따른 입술화장 이미지 지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한 톤의 새틴 핑크와 핑크, 회색 또는 중간 톤의 그레이쉬 퍼플과 미디엄 브라운, 그리고 강한 톤의 빨강색 입술은 퍼스널 컬러 이론을 비교적 지지하였으나, 강한 톤으로 분류되는 주황색 입술과 퍼스널 컬러 이론과의 관련성은 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피부톤을 보다 다양하게 한 자극물에 의한 실험과 이에 대한 결과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 본 얼굴 및 각 피부톤에서의 이미지 화장 차이

1) 본 얼굴과 밝은 피부 톤에서의 이미지 화장에 따른 요인 비교

본 얼굴과 밝은 피부톤에서의 각 이미지 화장의 비교에서 6개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친숙성 요인에서는 본 얼굴이 가장 친숙하게, 연두(2.9G 6.7/5.3), 오렌지(9.5R 6.4/6.4), 다크 브라운(5.6YR 4.2/1.6)의 눈화장, 주황(8.4R 4.4/7.3)색 입술, 그리고 새틴 핑크(6.6R 6.6/7.1) 볼 화장으로 배색한 내추럴 화장이 가장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요인에서도 본 얼굴은 가장 지성적으로 지각되었

으며, 아이보리(2.8Y 9.1/9.3), 라이트 블루(5.7PB 7.1/5.8), 다크 블루(5.6PB 4.1/3.5)의 눈 화장, 투명 핑크(9.0RP 8.0/6.5) 입술, 그리고 핑크(7.6RP 6.9/7.7) 볼 화장으로 배색한 쿨(cool) 이미지 화장이 가장 지성적이지 않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쿨 화장은 건강요인에서 가장 건강하게 보였으며, 본 얼굴과 내추럴 이미지 화장은 가장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본 얼굴과 아이보리 핑(9.0YR 8.9/0.7), 인디언 핑크(8.7RP 6.5/5.9), 하늘색(4.2PB 7.2/4.8)의 눈 화장과 그레이쉬 퍼플(6.1R 5.3/3.2) 입술, 그리고 핑크(7.6RP6.9/7.7) 볼 화장으로 배색한 엘레강스 이미지 화장을 제외한 4가지 이미지 화장들을 매력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전통성 요인에서는 엘레강스 화장을 가장 전통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본 얼굴과 쿨 이미지 화장을 가장 전통적이지 않게 지각하였다. 젊음요인에서는 쿨 이미지 화장을 가장 젊게,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6.0YR 8.2/2.6), 미디엄 브라운(5.6YR 5.8/4.3), 다크 브라운(2.7YR 3.5/2.0)의 눈 화장, 빨강(5.1R 3.2/7.0)색 입술과 새틴 핑크(6.6R 6.6/7.1) 볼 화장으로 배색한 클래식은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본 얼굴은 친숙하고 지성적이지만, 건강하지 않게 보였으며, 비교적 젊지 않고 매력성 또한 낮은 이미지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옅은 톤의 보라(7.4P 7.2/4.2), 노랑(0.4Y 7.3/5.8), 연지(4.5RP 6.2/9.5)의 눈 화장과 새틴 핑크(4.1R 6.0/7.6) 입술, 그리고 핑크(7.6RP 6.9/7.7) 볼 화장으로 배색한 로맨틱 이미지 화장은 매력적이었으며, 엘레강스 이미지 화장은 전통적으로, 쿨은 건강하고, 매력적이며, 젊게

<표 5> 본 얼굴 및 밝은 피부톤에서의 이미지 화장에 따른 요인 비교

	본얼굴 (n=77)	밝은 피부톤 베이커업					F	p
		로맨틱(n,65)	엘레강스(n,71)	쿨(n,65)	내추럴(n,62)	클래식(n,68)		
친숙성	.98 <sup>a</sup>	.04 <sup>b</sup>	.07 <sup>b</sup>	-.39 <sup>c</sup>	-.74 <sup>d</sup>	-.16 <sup>bc</sup>	33.932	.000**
지성	.95 <sup>a</sup>	.33 <sup>b</sup>	.46 <sup>b</sup>	-1.39 <sup>c</sup>	-.05 <sup>c</sup>	-.85 <sup>d</sup>	96.025	.000**
건강	-.35 <sup>c</sup>	.22 <sup>b</sup>	.38 <sup>b</sup>	1.16 <sup>a</sup>	-.35 <sup>c</sup>	.28 <sup>b</sup>	45.393	.000**
매력성	-.28 <sup>b</sup>	.48 <sup>a</sup>	-.10 <sup>b</sup>	.46 <sup>a</sup>	.27 <sup>a</sup>	.40 <sup>a</sup>	12.589	.000**
전통성	-1.23 <sup>d</sup>	-.25 <sup>c</sup>	.47 <sup>a</sup>	-1.25 <sup>d</sup>	.22 <sup>ab</sup>	.13 <sup>b</sup>	54.647	.000**
젊음	.01 <sup>c</sup>	.62 <sup>b</sup>	.16 <sup>c</sup>	.99 <sup>a</sup>	-.04 <sup>c</sup>	-.77 <sup>d</sup>	28.183	.000**

\*\* p<.01, a,b,c,d,e: Duncan 검정.

보이는 이마지 화장이었다. 또한 내추럴은 매력적이며, 비교적 전통적이고, 클래식은 매력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메이크업이었다.

2) 본 얼굴과 어두운 피부톤에서의 이미지 화장에 따른 요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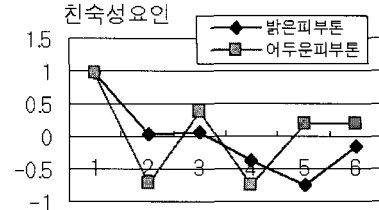
본 얼굴과 어두운 피부 톤에서의 각 이미지 화장을 비교한 결과 6개의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친숙성 요인에서는 본 얼굴이 가장 친숙하고, 로맨틱과 엘레강스가 가장 친숙하지 않게 지각되었다. 지성요인에서도 본 얼굴이 가장 지성적이었으며, 클래식이 가장 지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요인에서는 내추럴과 클래식 같은 비교적 짙은 색조 화장이 건강하게 지각되었으며, 쿨을 가장 건강하지 않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쿨은 클래식과 함께 가장 매력적인 화장으로 지각되었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극물들은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성 요인에서는 클래식이 내추럴이 가장 전통적으로 지각된 반면, 본 얼굴은 전통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젊음 요인에서는 로맨틱과 쿨 화장을 가장 젊다고 하였으며, 내추럴과 클래식을 가장 젊지 않다고 지각하였다.

3) 각 피부 톤에 따른 이미지 화장의 지각 차이 비교

(1) 친숙성 요인

친숙성 요인에서는 본 얼굴이 가장 친숙하게 지각되었으며, 로맨틱과 내추럴 이미지 화장은 피부 톤에



본얼굴 로맨틱 엘레강스 쿨 내추럴 클래식  
<그림 9> 친숙성 요인에서의 피부톤별 메이크업 비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로맨틱은 밝은 피부 톤에서는 친숙하게 평가되었고, 내추럴은 밝은 피부 톤에서는 매우 친숙하지 않게 지각되었지만, 어두운 피부 톤에서는 비교적 친숙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친숙성 요인에서 피부 톤과 이미지 화장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입술색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며, 퍼스널 컬러 이론 또한 비교적 지지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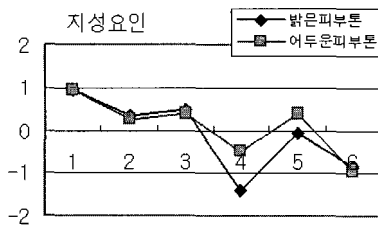
(2) 지성 요인

지성 요인에서는 쿨과 내추럴에서 피부 톤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각자들은 피부 톤에 상관없이 강하고 짙은 색조로 배색한 클래식을 지성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지성 요인에서도 본 얼굴은 가장 지성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입술색에 대한 결과와 차이가 있다. 즉, 입술색에서 새면 핑크는 피부 톤에 따른 차이가 컸고, 주황은 차이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으나 이들을 다른 화장색과 배색시킨 로맨틱은 피부톤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내추럴은 다른 이미지 화장에 비하여 차이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

<표 6> 본 얼굴과 어두운 얼굴 메이크업에 따른 요인 비교

	본얼굴 (n=77)	어두운 피부톤 메이크업					F	p
		로맨틱(n,66)	엘레강스(n,65)	쿨(n,67)	내추럴(n,65)	클래식(n,70)		
친숙성	.98 <sup>a</sup>	-.71 <sup>c</sup>	.37 <sup>b</sup>	-.75 <sup>c</sup>	.19 <sup>b</sup>	.19 <sup>b</sup>	45.101	.000**
지성	.95 <sup>a</sup>	.27 <sup>b</sup>	.39 <sup>b</sup>	-.50 <sup>f</sup>	.39 <sup>b</sup>	-.94 <sup>d</sup>	42.159	.000**
건강	-.35 <sup>d</sup>	-.09 <sup>e</sup>	.14 <sup>bc</sup>	-.72 <sup>c</sup>	.62 <sup>a</sup>	.38 <sup>ab</sup>	26.102	.000**
매력성	-.28 <sup>b</sup>	-.26 <sup>b</sup>	-.16 <sup>b</sup>	.75 <sup>a</sup>	-.03 <sup>b</sup>	.52 <sup>a</sup>	15.647	.000**
전통성	-1.23 <sup>e</sup>	.12 <sup>c</sup>	.42 <sup>b</sup>	-.39 <sup>d</sup>	.46 <sup>ab</sup>	.72 <sup>a</sup>	52.732	.000**
젊음	.01 <sup>b</sup>	.55 <sup>a</sup>	-.14 <sup>b</sup>	.46 <sup>a</sup>	-.53 <sup>c</sup>	-.69 <sup>c</sup>	19.911	.000**

\*\* p<.01, a,b,c,d,e: Duncan 검정.



본얼굴 로맨틱 엘레강스 쿨 내추럴 클래식  
 <그림 10> 지성 요인에서의 피부톤별 메이크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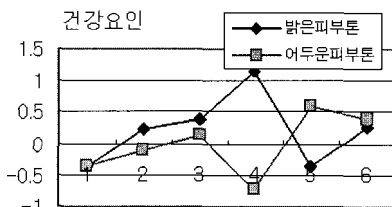
게 보이는데, 이는 입술색에 대한 평가에서 어두운 피부톤의 주황색 입술이 밝은 톤에서 그것보다 더 지성적이지 않게 평가된 결과와 상반된다. 따라서 지성요인에서 여성의 얼굴 화장에서의 단색에 대한 이미지와 그것이 다른 색과 배색되었을 때의 이미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퍼스널 컬러 이론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건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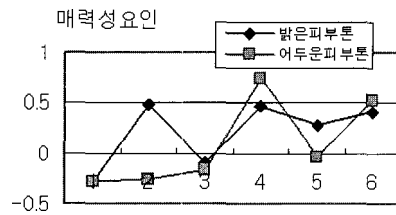
건강요인에서는 쿨과 내추럴에서 차이가 있었다. 물은 밝은 피부 톤에서, 내추럴 화장은 어두운 피부톤에서 가장 건강하게 지각되었다. 로맨틱, 클래식, 내추럴 등은 피부 톤에 상관없이 본 얼굴에 비하여 비교적 건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술색에 대한 평가와 차이가 있으며, 퍼스널 컬러 이론과의 관련성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요인에서 퍼스널 컬러는 이미지 화장에서 더 잘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4) 매력성 요인**

매력성 요인에서는 로맨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밝은 피부 톤에서의 로맨틱 메이크업은 매력적이지만, 어두운 피부 톤에서는 가장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내추럴은 어두운 피부 톤



본얼굴 로맨틱 엘레강스 쿨 내추럴 클래식  
 <그림 11> 건강 요인에서의 피부톤별 메이크업 비교.



본얼굴 로맨틱 엘레강스 쿨 내추럴 클래식  
 <그림 12> 매력성 요인에서의 피부톤별 메이크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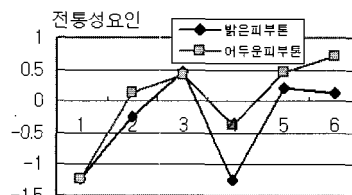
에서 보다 밝은 피부 톤에서 더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입술색에서의 결과와 같다. 따라서 매력성 요인에서 주황색 입술과 주황색 입술과 브라운색 계열의 눈 화장, 그리고 세번 핑크 볼 화장을 한 내추럴 메이크업에 대한 지각자들의 이미지 평가는 어두운 피부 톤에서 주황색 입술이 더 매력적이라는 퍼스널 컬러의 일반적 이론과 차이가 있다.

**(5) 전통성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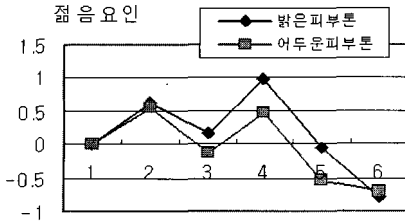
전통성 요인에서의 비교 결과, 지각자들은 피부 톤에 상관없이 엘레강스를 비교적 전통적인 화장으로 평가하였으며, 어두운 피부 톤에서 클래식과 내추럴은 전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통성 요인의 이런 결과는 주황색 입술에 대한 그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전통성 요인에서 퍼스널 컬러 이론은 주황과 빨강 입술색과 이들이 각각 다른 화장색과 배색된 내추럴과 클래식에서 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6) 젊음 요인**

젊음 요인에서는 엘레강스, 쿨, 내추럴에서 피부 톤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요인에서의 결과에 비하여 그 차이가 적었다(그림 14). 로맨틱과 쿨 화장은 비교적 젊게 평가하였는데, 쿨 메이크업은 밝은 피부 톤에서 가장 젊게 보였다. 본 얼굴은 비교적 젊지



본얼굴 로맨틱 엘레강스 쿨 내추럴 클래식  
 <그림 13> 전통성 요인에서의 피부톤별 메이크업 비교.



본얼굴 로맨틱 엘레강스 쿨 내추럴 클래식

〈그림 14〉 점수 요인에서의 피부톤별 메이크업 비교.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입술색에서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새먼 핑크 입술색의 점수 요인에서 피부톤은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지만, 새먼 핑크 입술이 다른 화장색과 배색된 로맨틱 화장에서는 피부톤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레이쉬 퍼플도 입술색에서는 차이가 비교적 컸으나, 이미지 화장으로 배색되어졌을 때는 그 차이가 적었다. 주황색 입술과 내추럴 메이크업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였다.

### 5. 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는 〈표 7〉이며, 선호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극물은 〈그림 15〉와 같다. 입술 화장만을 한 자극물에서는 새먼핑크색이 피부톤에 상관없이 지각자들에게 선호되었으며, 이 때, 밝은톤 얼굴에 새먼핑크 입술 화장을 한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가 어두운 얼굴 톤에서의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보다 더 높았다. 밝은 피부 톤에서의 핑크색 입술 또한 선호되는 색이었는데, 이는 어두운 피부 톤에서의 핑크색 입술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와 차이가 있었다. 한편, 그레이쉬 퍼플 입술 색은 어두운 얼굴에서는 선호도가 높았지만, 밝은 톤의 얼굴에서는 그 정도가 낮았다. 입술색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종합하면, 지각자들은 밝은 얼굴 톤의 새먼 핑크색 입술을 가장 좋아한 반면, 밝은 얼굴의 빨강색 입술을 가장 싫어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입술색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퍼스널 컬러 이론이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표 7〉 자극물별 선호도

피부톤	입술 화장				이미지 화장				
	선호도	명칭	피부톤	선호도	피부톤	선호도	명칭	피부톤	선호도
밝은 피부톤	3.55	새먼핑크	어두운 피부톤	2.59	밝은 피부톤	3.40	본얼굴	어두운 피부톤	2.64
	2.85	그레이쉬 퍼플		3.37		3.37	로맨틱		3.11
	3.25	핑크		2.64		3.18	엘레강스		2.46
	2.76	주황		2.57		3.11	랄		2.85
	2.25	빨강		2.46		2.31	내추럴		2.67
	2.96	비디어브라운		2.69		2.49	클래식		

순위	1	2	3	3	5	6	7	7
명칭	밝은톤, 새먼핑크	본 얼굴	어두운톤 그레이퍼플	밝은톤 로맨틱	밝은톤 핑크	밝은톤 엘레강스	어두운톤 엘레강스	밝은톤 쿨
선호도	3.55	3.40	3.37	3.37	3.25	3.18	3.11	3.11
사진								
컬러칩	F P L	F P L	F P L	F P L	F P L	F P L	F P L	F P L

〈그림 15〉 선호도 3.0 이상의 자극물 사진.

지각자들은 연한색 입술을 짙은색 입술보다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미지 화장에 대한 선호도에서 밝은 피부 톤의 로맨틱 메이크업이 선호도 3.37로 가장 높았던 반면, 밝은 피부톤에서의 내추럴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본 얼굴에 대한 선호도는 3.40으로서 이미지 화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밝은 톤의 로맨틱 화장보다 높았으나, 밝은 톤의 새민핑크 입술 화장을 한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3.5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각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보다 연한 입술 화장을 한 얼굴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과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색 이미지 지각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친숙성, 지성, 건강, 매력성, 전통성, 젊음 등의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본 얼굴 자극물은 입술 화장과 이미지 화장을 한 자극물에 비하여 더 친숙하고 지성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건강하지 않고, 전통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셋째, 피부 톤은 화장색을 단색으로 적용시킨 입술색과 배색으로 적용시킨 이미지 화장에서 모두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넷째, 퍼스널 컬러 이론은 입술색과 이미지 화장의 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입술 화장색에서 친숙성, 전통성, 젊음 요인에서는 퍼스널 컬러 이론이 지지되었으나, 특히 주황색 입술은 지성, 건강, 매력성 요인에서 퍼스널 컬러 이론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미지 화장에서는 매력성 요인에서 내추럴 이미지 화장에 대한 결과에서 퍼스널 컬러와 차이가 보였을 뿐, 대부분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화장색에서 퍼스널 컬러 이론은 입술에 단색이 적용되었을 때보다 다른 색과 배색되어졌을 때 더 잘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황색 입술과 주황색 입술이 배색된 내추럴 메이크업에 대한 결과는 논의의 여지를 가지므로 후속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입술색과 이미지 화장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피부톤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각자들은 연한색 입술을 짙은색 입술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은 본 얼굴과 밝은 피부 톤에 연한 입술 화장이나 부드러운 톤의 이미지 화

장을 한 자극물을 그렇지 않은 자극물에 비하여 더 좋아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따른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여성에 대한 얼굴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평가에서 피부 톤과 입술 화장색, 전체 화장 배색 조건은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므로, 여성들의 화장 행동에서 개인의 피부색과 화장색, 그리고 화장색 간의 배색이 고려되어진다면 얼굴 이미지 개선 효과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기존의 퍼스널 컬러 이론 지지된 다수의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화장 행동에 적극 활용하며, 아울러 지지되지 않은 입술색과 화장 배색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황색 입술과 내추럴 화장은 빨강색 입술과 클래식 화장과 더불어 한국인의 전통화장으로 간주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들 각 화장색과 피부 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극물이 사진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얼굴에 대한 이미지 평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과 연구결과가 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집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대해석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진 자극물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극물 제작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각대상자 또한 일반인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인의 화장색 이미지 지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동일한 입술색에 여러 가지 배색 조건을 적용시킨 자극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화장색 배색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조사 결과와 함께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 도구로 제작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대학 메이크업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大坊郁夫 (1996).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ップ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Vol. 10.
- 石川香里 (1995). *現象學的化粧論 「おしやれの哲學」*. 東京: 理想社.



- 小林重順 (1991). *新・カラーイメージ辞典*. 東京: 講談社.
- 春山行夫 (1992). *化粧*. 東京: 平凡社.
- 김구자 (2002). "한국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의상선호색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호.
- 김구자, 정혜원 (2002). "한국노인 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선호색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2호.
- 김구자 (2003). "성인 남성의 피부색 분류와 선호색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1호.
- 동아세계대백과사전 (1994). 30권. 서울: 동아출판사.
- 아이·알·아이 연구소 (1997). *한국인 색채감성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아이 알 아이 디자인 연구소.
- 아이·알·아이 연구소(1998). *색채기호 유형 추출에 관한 연구*. 서울: 아이 알 아이 디자인 연구소.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권 2호.
- 이진숙, 김창순, 신은영 (1999). "색채감성 분석 기법에 의한 제품의 이미지 유형별 예측 모델 작성." *한국색채학회지* 13호.
- 이연희 (2001).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희 (2004). "토탈코디네이션 관점에서 본 피스널 컬러의 의미." *한국패션뷰티학회지* 2권 1호.
- 장양은 (1981). *사회심리학*. 서울: 범문사.
- Adams, G. R. (1985). "Attractiveness Through the Age: Implication of Facial Attractiveness over the Life Cycle."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pp. 133-151.
- Argyle, M. and Cook, M. (1976). "Gaze and Mutual Gaz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quoted in Graham, J. A. and Jouhar, A. J. (1981).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Vol. 3.
- Buss, A. H. (1985). "Self-consciousness and Appearance."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 Cash, T. F. (2002). "Body Image and Social Relations." in *Body Image*. N. Y., London: The Guilford Press.
- Fujii, D. (1991). *Color with Style*. Tokyo: Graphic-Sha.
- Graham, J. A. and Jouhar, A. J. (1980). "Cosmetics considered in context of physical attractiveness: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Vol. 2.
- Graham, J. A. and Jouhar, A. J. (1981).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Vol. 3.
- Hamid, P. (1972). "Some Effects of Dress Cues on Observational Accuracy: A Perceptual Estimate,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86.
- Hassin, R. and Trope, Y. (2000). "Facing Faces: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8(5).
- Jackson, C. (1984). *Color Me Beautiful*. N.Y.: Ballentine Books.
- Jackson, L. A. (2002). "Physical Attractiveness: A Socio-cultural Perspective." in *Body Image*. N. Y., London: The Guilford Press.
- Jouhar, A. J. and Graham, J. A. (1985). Psychological Studies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 McKeachie, W. (1952). "Lipstick as Determiner of First Impressions of Personality: An Experiment for the Psychology Cour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6.
- Pooser, D. (1997). *Always in Style*. CA.: Crisp Pub.
- Sanders, C. R. (1989). *Customizing the Body*.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Smolak, L. (2002). "Body Image Development in children." in *Body Image*. N. Y., London: The Guilford Press.
- Spillane, M. and Sherlock, C. (1995). *Color Me Beautiful's Looking Your Best*. N.Y.: Madison Books.
- Waters, J. (1985). *Cosmetics and the Job Market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